



5면

참여형 경제교육의 장, 공동체 가치 실현
고산고 사회적협동조합 고순도순 학교매점 개소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음 9월 28일) 제265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익산형 육아정책 전국서 벤치마킹

돌봄, 야간·휴일 확대
맞벌이 부모에 큰 보탬
난임치료사업 내년부터
남성도 지원, 문의 빗발

익산시의 임신·출산·돌봄 정책이 전국 이목을 집중시키며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익산시의 야간·휴일까지 확대한 아이 돌봄 정책은 맞벌이 부부는 물론 갑작스런 일정이 생긴 부모들에게 큰 보탬이 되는 등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시는 '익산형 임신·출산·돌봄 정책'에 대한 타 지자체의 문의가 잇따르며 적극적인 도입 의사가 전달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관련기사16면)

이 중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야간·휴일까지 확대한 아이 돌봄 정책이 가장 인기가 높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남성까지 확대 시행할 난임 지원 서비스는 벌써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돌봄공동체 공동육아 나눔터는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의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부모들이 느끼는 현실감 있는 다양한 정책을 끌어내는 창구가 되고 있다.

익산시의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임신·출산·돌봄 서비스 확대는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형 임신·출산·돌봄 정책은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보육환경을 더욱 확대해 시민들이 행복한 품격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정영원 기자

강염병 의심되면
'1339'로

토·일요일 신문 쉼니다.



'바로온 마을버스' 충전 시연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2일 전주 덕진구 팔복동에 위치한 마을버스 차고지에서 열린 '교통오지 해소하는 전주 바로온 마을버스 개통식'에 참석해 버스에 충전을 하고 있다.

전북교육박물관 설립 본격... 교육유물 수집 착수

전북교육청, 사료 구입 공고... 17일까지 신청 접수받아

전북도교육청이 (가칭)전북교육박물관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2020년도 전북교육박물관 교육유물(사료) 구입 공고'를 내고 체계적인 교육유물 수집에 착수했다.

이는 사라져 가는 전라북도 교육유물을 구입해 교육박물관의 전시·교육·연구자료로 활용하고, 또 수집·발굴된 교육 관련 유물형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 발전과 교육 문화 진흥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이다.

구입 대상은 고도서·고문서·도서류·문서류·의류·시청각 자료 및 교실용구·학교비품·학습용구 등 학교나 교육·교육 행정과 관련한 모든 것이다.

다만,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과 같이 불법으로 취득한 유물은 매도 대상이 아니다.

유물매도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 등은 오는 17일까지 신청서, 유물사진 파일 등 제출서류를 갖춰 이메일(wivem@jedu.kr)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1차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 유물(현물) 접수, 2차 유물평가위원회 개최, 화상자료 공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유물매매 협상 및 계약이 이뤄진다.

특히 교육유물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된 유물평가위원회에서는 유물의 진위여부, 가치평가, 감정액, 구입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 박물관 구입 예정 유물은 인터넷 공개를 통해 불분명하게 여부를 검증한다. 이승일 정책공보관은 "전북교육박물관

관은 전북교육의 변천사를 한 눈에 보여주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면서 "교육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어린이들 미술실력 '일취월장' 호평

새만금 그림그리기 공모전 시상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12일 서울 새만금투자전시관에서 제5회 새만금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 20일~10월 8일 '해돋이 새만금'로 불려가자, '새만금 놀이동산'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어린이들이 미래 도시 새만금에 대해 무한한 상상력과

교통 취약지역 달린다 '바로온' 내일부터 부릉~

전주시, 마을버스 개통... 조촌동 등 18개 노선 운행

전주 조촌동과 유아동 동서학동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마을버스 '바로온'이 오는 14일 운행을 시작한다.

시는 12일 팔복동 마을버스 차고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백순기 전주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로온'의 개통식을 가졌다.

이날 개통식에서는 마을버스 차고지 현관식과 테이프 커팅식, 전기버스 충전 시연에 이어 차고지부터 월드컵경기장까지 마을버스 시승식이 진행됐다.

마을버스는 내일부터 ▲교잔·신유강·덕동·홍개·정복·용신·신기·오신마을 등 조촌·여의동 노선(8개) ▲혁신·만성동 노선(2개 노선) ▲산재·금하·원산정마을 등 유아동·금암·인후동 노선(3개) ▲삼경사·고덕·내원당마을 등 동서학동 노선(4개) ▲추동·학전·원당리 등 평화2동 노선(1개) 등 총 18개 노선에서 운행된다.

운행 노선 및 시간표 등은 전주 시 홈페이지(www.jonju.go.kr)와 승강장에 부착된 포스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을버스 운행은 전주시설관리공단이 맡아 운영한다. 18개 노선에

제공하는 친환경 전기버스 12대가 투입돼 미세먼지와 매연 저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전기버스가 다니지 않는 일부 마을에는 중소형 승합차 4대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주민들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다.

이용요금은 어른과 학생, 어린이 모두 500원이다. 카드와 현금 구분

없으며 시내버스 정기권도 쓸 수 있다. 한 번 타면 시내버스를 최대 2회까지 무료로 환승할 수도 있다.

시는 외곽지역 등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지역에 마을버스라는 맞춤형 교통서비스가 투입되면 시민들의 이동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버스 투입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기사들 근무환경 개선과 운송회사 재정부담 완화 등 시내버스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마을버스 '바로온'의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을버스와 모의택시 등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기·수소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충해 지속가능한 생태교통도시로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기자

장·부안군수상(장려상)과 장학금을 받았으며, 총 450명의 특선 수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상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모전 심사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이상봉 심사위원장은 "공모전에 참가한 어린이들의 미술 실력이 새만금사업의 발전만큼이나 일취월장하고 있다"라는 훈훈한 심사평을 전했다.

수상자들은 타일에 새겨 새만금 방조제에 전시해 향후 새만금 방조제를 아의 미술관으로 조성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유호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